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는 다릅니다(요한 14,27)

가톨릭마산

발행 천주교 마산교구 편집 미디어국
전화 055.249.7072~3 팩스 055.249.7117
주소 51727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오동북16길 27
홈페이지 http://cathms.kr 메일 media2@cathms.or.kr

제2368호 2019년 8월 4일 **연중 제18주일**

되찾아야 할 것들

오늘 복음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재산을 늘리려는 부자의 비유와 유산으로 분쟁하는 군중의 비유를 말씀해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들을 통해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곳이 어디인지 알려주십니다. 그곳은 재물과 탐욕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신 하느님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흐름 속에서, 하느님을 바라보아야 함을 머리로 깨닫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우리의 시선은 눈앞에 놓인 재물과 사라질 것들을 향할 때가 많습니다. 종종 우리는 눈앞의 재물에 우리의 생명과 주체성을 투사합니다. 재물이 없어지면, 우리의 목숨이나 주체성이 없어지는 것처럼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생명이 다할 때, 재물은 그저 헛것임을 알게 됩니다.

제1독서인 코헬렛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허무로다 허무!" 여기서 허무라는 의미로 해석된 히브리어는 הֶבֶל(헤벨)입니다. 헤벨의 본래 의미는 입을 떠나면 허무하게 사라지는 숨결을 뜻합니다. 이 단어가 복수로 쓰이면 הֲבָלִים(하발림)으로 쓰입니다.

הֶבֶל(헤벨)에서 הֲבָלִים(하발림)으로 바뀌면서 부정적 의미가 더 부각됩니다. 한순간에 없어지는 것들이라는 의미는 복수로 바뀌면서 우상들이나 헛것들이라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곧 코헬렛은 영원하지 않고 한순간에 사라질 우상과 헛것들에 우리의 시선을 빼앗기지 않아야 함을 이야기합니다.

제2독서인 콜로새서에서 바오로 사도는 "위의 있는 것을 생각하고 땅에 있는 것은 생각하지 말라"라는 말을 합니다. 바오로 사도는 πλεονεξια(플레오넥시아), 곧 탐욕 또는 탐하는 마음에서 일어나는 불륜과 더러움, 욕정, 나쁜 욕망을 버리라 이야기합니다. 바오로 사도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 새 인간이 되었듯 과거의 악한 행실과 탐욕을 벗어버리고, 자기를 창조하신 분의 모상에 따라 끊임없이 새로운 시선과 마음으로 천상 것을 추구하라 이야기합니다.

탐욕과 세상에 헛된 것들에 대한 욕심을 비울 때, 비워진 자리에 하느님을 바라보는 시간과 영원한 생명을 채울 수 있는 자리가 생기게 됩니다. 한순간에 없어질 헛된 것이 아닌 천상 것을 추구합시다. 그렇게 새롭게 창조된 우리, 영원한 생명이신 하느님을 향해 시선을 돌리며 영원한 생명에 다가가는 시간이 되어 봅시다.

주경환 십자가의 요한 **신부** | 사파동본당 2보좌

주일 전례

입 당 송	하느님, 저를 구하소서. 주님, 어서 저를 도우소서. 저의 도움, 저의 구원은 주님이시니, 주님, 더디 오지 마소서.
본 기 도	주님, 주님의 종들에게 끊임없이 자비를 베푸시니, 주님을 창조주요 인도자로 모시는 이들과 함께하시어, 주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고, 새롭게 하신 모든 것을 지켜 주소서.
제 1 독 서	코헬 1,2; 2,21-23
화 답 송	◎ **주님, 당신은 대대로 저희 안식처가 되셨나이다.**
제 2 독 서	콜로 3,1-5.9-11
복음환호송	◎ **알렐루야.** ○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하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
복 음	루카 12,13-21
영 성 체 송	주님은 하늘에서 마련하신 빵을 저희에게 주셨나이다. 그 빵은 누구에게나 맛이 있어 한없는 기쁨을 주었나이다.

당나귀왕자 메시아9. 사랑의 시선

> 저, 공주님. 사, 사랑해요. / 정말요? / 정말 정말. / 나도 사랑해요.
> [진정한 사랑의 첫 키스만이 원래 모습을 되찾게 할지니]
> 이해가 안 가요. 아름다워질 줄 알았는데. / 내 눈엔 아름다우세요. (영화, 슈렉)

사랑의 키스를 받으면 예뻐질 줄 알았던 공주, 그러나 모습은 변하지 않은 그대로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세상 만물을 "제 종류대로(창세 1,11)" 창조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하느님께서 보시니 그저 좋았습니다. 하느님 시선에 세상 모든 것은, 당신의 사랑으로 만들어졌기에 제 종류대로, 있는 그대로, "예쁘지는 않"아도 "사랑스"럽습니다.

피오나는 '나다움'을 잃고 지냈었습니다. '공주는 이래야 한다.'고 자신을 가두고 왜곡시켰던 공주병에서 벗어나면서, 그리고 콤플렉스를 이겨낸 슈렉의 변함없는 사랑의 시선을 통해, 피오나는 자신의 사랑스러움을 회복합니다.

평론가는 가장 아름다운 성화로 어느 시골 성당의 벽화를 선정했습니다. 나무와 들꽃, 새와 짐승, 물고기와 곤충들이 아무렇게 흩어져 있는 그림입니다. 아이의 솜씨인 듯, 참새를 탄 말, 나무 위에 올라앉은 물고기도 있습니다.

> "할아버지가 몹시 가난한 소년일 적 얘기다. 소년은 신부님의 과분한 사랑을 받았지. 신부님은 소년이 그림 그리기를 좋아한다는 걸 아시고는 학용품과 함께 화구까지 사주셨지. 그러던 어느 날 뭐든지 그려 보라고 하셨지. 아무리 뭐든지 그리고 싶어도 소년은 그때까지 보고 자란 것밖에 못 그렸지. 내 평범한 그림을 예술로 만든 건 오랜 세월과 사람들의 변함없는 사랑이었다." (박완서, 보시니 참 좋았다)

소식

교구 꼬미시움 및 꾸리아 단장 연수회

마산 레지아(담당: 이원태 클레멘스 신부, 단장: 곽세옥 레미지오)는 7월 21일 산청 성심원에서 교구 내 꼬미시움 및 꾸리아 단장을 대상으로 2020년 레지아 계획수립과 발전방향을 위한 연수회를 개최하였다. '실무교육 방향', '레지오의 당면한 문제', '소년, 청년 쁘레시디움 활성화 방향' 등의 주제로 연구발표를 하였다. 이날 연수는 104명이 참석하였다.

NEWS

가좌꾸리아 단원의무교육

가좌동성당(주임: 김형렬 요셉 신부) 순교자들의 모후 꾸리아(단장: 오정자 소화데레사) 소속 86명의 단원이 7월 23일 레지오 의무교육(영성)을 받았다. 김정훈 도미니코 신부(가르멜 모후 수도회 담당)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과 사랑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였다.

NEWS

김현주 율리아나·가톨릭여성회관 관장

손 내미는 교회

작년 노숙인의 겨울나기가 걱정되어 한마음의 집 무료 급식소 이용자를 대상으로 약식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13명이 노숙을 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그리고 최근 창원시가 '창원시 노숙인 실태조사'를 한 결과 29명이 노숙을 하고 있다는 결과를 내놓았다. 그러나 현장을 발로 뛰며 두루 조사하지 않은 한계가 있어 그 수는 훨씬 상회할 것이라 여겨진다.

마산역 주변에만 30여 명 이상의 노숙인이 거리, 공원, 녹지, 지하도, 하천변, 역 등에서 잠을 자고 있다. 그리고 최근 한 달 전 양덕천에서 노숙하던 한 분이 갑자기 돌아가셨다. 빈집, 빈 아파트가 남아도는데도 이들을 위한 집은 어디에도 없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나이 든 노숙자가 길에서 얼어 죽은 것은 기사화되지 않으면서, 주가지수가 조금만 내려가도 기사화되는 것이 말이나 되는 일입니까? 이것이 바로 배척입니다"(복음의 기쁨 53항)라고 한 바 있다. 지난 7월 성 빈첸시오 아 바오로 사제선교회(라자리스트회)·사랑의 딸회 공동총장 토마스 마크릭 신부가 방한하여 한국 빈첸시안 가족의 날 행사에서 "한국 빈첸시오가 노숙자를 위한 13개의 집(Thirteen Houses)을 지어달라"고 요청하였다는 기사를 접했다. '13개'를 강조한 이유는 모르겠으나 '빈첸시오회'가 빈부의 극한 양극화에 대응하여 꼭 필요한 일을 하는 것 같아 내심 반가웠다.

그동안 가톨릭여성회관에서 일하면서 가톨릭사회복지가 '특수 사목'으로 존재하게 된 이유에 대해 궁금했었다. 각 본당이 자기 지역에서 소외된 이웃을 잘 챙긴다면 굳이 별도의 사회복지 기관이 존재해야 할 필요는 없지 않았을까.

"교회는 오래 전부터 자선을 미덕으로 여겨왔다.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참된 그리스도교 제자 공동체의 정체성이었다. 그리스도교 신자 중에는 가난한 사람도 있고 부자도 있었다. 부자는 자연스럽게 이웃인 가난한 사람과 나눔을 실천할 수 있었다. 그러나 지금 교회 안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점점 배제되고 있다. 가진 자와 없는 자가 분리되고 자선이 함께 나누는 삶이 아니라 시혜가 되고 말았다. 이웃과 나누는 정감이 아니라 마치 세금을 내는 듯한 의무가 되어버렸다. 이웃으로 받아들이지는 않고 도움은 주는 그래서 우리와 그들은 다르다는 선을 그어 나누게 되었다."('for 노숙인 겨울나기' 나승구 신부 발제 중)

허름한 여성회관이 '노숙인지원센터'로 간판을 바꿔달 때가 된 것인가. 그분만이 답을 아실 것이다.

축하합니다

산호동성당
사도들의 모후 쁘레시디움 2000차 주회

거창성당
은총의 모후 쁘레시디움 2000차 주회

51차 마산선택주말을 준비하며 다시 돌아보는 『50차 선택주말 후기』

벚꽃 비가 내리던 따뜻한 봄날, 수정 트라피스트 수녀원에서 50차 선택주말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3월 29일부터 31일까지 19명의 신자와 1명의 비신자로 구성되었던 50차 선택주말에서는 자신을 알고, 나누고, 사랑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들을 통해 나와 내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50차 선택주말을 마친 수강자들은 "생각이 많아지고 복잡했었는데 여기서 정리가 된 것 같아요! 밖에서도 잘 해낼 것 같습니다!" "마음이 후련하고 가벼워진 것 같다." "자존감이 up된 느낌." "행복하다. 나라는 사람을 다시 발견하고 나를 되돌아볼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이었다." "굳게 닫혔던 마음이 조금 열렸던 것 같아요. 행복합니다." "마음속의 응어리가 풀어져 가는 느낌입니다. 아픔과 슬픔을 안고 들어왔는데 선택을 마치고 나갈 발걸음이 가벼울 거란 확신이 듭니다. 이런 시간 만들어줘서 고마워요.^^" 등의 소감을 밝혔습니다.

이렇게 2박 3일 동안 선택주말 속에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자신에 대해 알아가는 것을 통해, 다른 사람을 이해하며 서로 사랑하고 함께하는 것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었던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번 50차 수강자들은 4월 13일(주일) 창원 성산복지관에서 재모임을 가진 뒤 공식 일정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선택주말은 종교를 초월하여 20~30대 미혼 남녀라면 누구든 참가할 수 있습니다. 나를 조금 더 알고 사랑하고 싶은 분들을 위해 선택 봉사자들은 51차 선택주말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51차 선택주말은 수정트라피스트 수녀원에서 10월 25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부터 시작될 예정입니다. 참가 문의는 masan.choice@gmail.com 로 메일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50차 마산선택주말 차수 대표 후기

안녕하세요. 50차 선택 차수 대표 심샘 베로니카입니다. 저는 교구에 선택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지 몰랐었습니다. 그런데 본당 신부님과 수녀님이 참가해보라고 추천해주셔서 선택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선택주말에 참가해보니 다른 피정과 달리 그동안의 저를 돌아볼 수 있는 다양하고 좋은 프로그램이 많았습니다. 선택에서 만난 신부님, 봉사자, 50차 선택에 참가하신 20명 전부 다 기억이 납니다. 그중에서도 2박 3일간 많은 시간을 보낸 조원들이 가장 기억이 많이 납니다.

처음에는 많이 어색했는데 나중에는 매우 친해져서 끝나고 헤어질 때 정말 아쉬웠습니다. 2주 뒤에 재모임을 했었는데 저를 포함해서 생각보다 적은 인원이 와서 너무 아쉬웠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꼭 다시 다 같이 모였으면 좋겠습니다.

선택이란 프로그램은 정말 좋습니다. 자신을 돌아보고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도 들을 수 있습니다. 마산교구의 20~30대 신자분들이 많이 참가하시면 좋겠습니다.

– 50차 마산선택주말 차수 대표 심샘 베로니카(하동성당)

형제는 용감했다 3

① (고) 정삼규 요한 몬시뇰과 정영규 마르코 신부님(이하 존칭 생략함을 용서하소서.) ② 구병진 베드로와 구성진 율리아노 ③ 유영봉 야고보와 유봉호 바르톨로메오 ④ (고) 김용백 요한과 김용호 안셀모 ⑤ 남경철 루도비코와 남영철 요한 마리아 비안네 ⑥ 백남국 요한과 백남해 요한 보스코 ⑦ 최경식 야고보와 최태식 필립보 ⑧ 김정우 라파엘과 김현우 가브리엘 ⑨ 최권우 펠릭스와 최진우 아드리아노 ⑩ 김유태 비오와 김승태 마티아. 우리 교구의 형제 신부님들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구이신 (고) 이응석 프란치스코와 대구대교구 이응욱 요한 형제 신부님이 계십니다.(어떤 분이 "지면 잡아먹으려고 사람 이름 죽 나열하는 것 아니냐"고 하시는데! 맞습니다) 우리 교구만 본다면 10형제 20명입니다. 그중에 두 분이 먼저 주님 곁으로 가셨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처음 부른 제자들이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아… 다른 두 형제, 곧 제베대오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마태오 4,18~22사이)이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형제들을 당신의 첫 제자로 부르십니다. 네 명의 형제들은 〈그물을 버리고 배와 아버지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나섭니다. 생업 수단과 혈육마저도 내려놓습니다. 인생의 대전환기가 찾아오자 훌훌 털고 새 출발을 합니다. 대단한 용기이며 결단입니다. 어떻습니까? 첫 제자들이 그렇게 용감하게 말씀에 따를 수 있었던 것은 형제가 함께하기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역시 형제는 용감합니다.

백남해 요한 보스코 신부
교구 사회복지국장

주님의 소리

김말순 베아따 • 수필가

살아 있는 모든 것들은 소리를 낸다. 미물인 하루살이나 매미 같은 곤충에서부터 사자나 호랑이 그리고 인간에 이르기까지 모든 생명 있는 것은 저마다의 고유한 소리를 내며 살아간다.

귀뚜라미, 휘파람새, 종달새, 뻐꾸기, 닭 울음소리는 언제 들어도 정겹지만 두꺼비, 돼지, 괭이갈매기 울음소리, 개나 인간들의 싸움 소리는 언제 들어도 소음이다.

생명 있는 것들만 소리를 내는 게 아니다. 졸졸 흘러내리는 계곡물, 대숲에 이는 바람, 후두득 옥수수나 토란잎에 떨어지는 빗방울, 크리스마스이브의 새벽송, 산사의 범종이나 제야종 소리, 뱃고동 소리는 우리 맘을 언제나 순화시켜주지만, 천둥 번개, 태풍에 흔들리는 나무들과 불어난 계곡물 쏟아지는 소리, 제재소 톱날, 앰블런스 사이렌 소리는 언제 들어도 심란하다. 낙엽 밟는 소리, 감이나 알밤 떨어지는 소리, 얼음장 밑으로 흐르는 물소리, 바이올린이나 가야금, 사물놀이 등 생명 없는 물상들이 내는 소리가 사람의 목소리보다 더 감동적일 때가 있다.

돌아보면 지난 세월 나는 많은 소리를 들으며 살아왔다. 내 유년의 뜨락엔 언제나 시골 과수원의 까치 소리, 워낭소리, 새끼염소 소리, 치르륵치르륵 여치나, 꿀벌 잉잉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능금 밭의 까치나 까마귀를 쫓는 것이 방과 후 내 일과였다. 봄이면 삐삐나 버들피리를 불고, 가을이면 낙엽 지는 소리와 도리깨질 소리, 겨울이면 수북이 쌓인 눈 위로 자박자박 걸어갈 때 들리던 눈 무게에 나뭇가지 꺾어지는 소리, 정월대보름 온 마을 곳곳에 달 불이야 고래고함, 수업 시간마다 울리던 학교 종이 땡땡땡, 통금 사이렌 이런 소리를 들으며 자랐다.

자연의 소리는 세월이 지나도 크게 달라진 게 없지만, 인간들의 소리는 많이 변했다. 문명 이기들로 많이 편리해지고 넉넉해졌지만 그만큼 더 행복해지지는 못하고 더 많은 스트레스와 질병과 우울함에 시달리고 있다. 괄목할만한 학문의 진보가 있었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원초적 문제에 대해서는 공맹 시대보다 더 나아진 게 없다.

인간은 울면서 태어나 살아가는 동안 많은 남의 소리를 듣기도 하고 내기도 하며 살다가 어느 날 문득 타인들의 울음소리 속에 사라지고 마는 존재가 아닌가?

나도 사라지기 전 하늘로부터 오는 주님의 소리를 더 잘 들으며 신앙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묵상해 본다.

기억할 사제

8월 10일(토) : 故 이태식 부제 50주기

故 이태식 부제 50주기 추도미사

일 시 : 8월 10일(토) 11:00
장 소 : 고성 이화공원묘원 성직자 묘역
문 의 : 여 가타리나 010·3457·3411

하느님 안에서의 휴가 2박3일

일 시 : 8월 8일(목)15:00~10일(토)15:00
장 소 : 마산가톨릭교육관
참가대상 : 향심기도에 관심있는 분 누구나
참가비 : 16만 원
문의 및 신청 : 055·221·1891

교구·본당

■ 예비신학생, 여성소자 하계 연수

일 시 : 8월 10일~11일(주일) 1박2일
장 소 : 창녕온누리수련원
문 의 : 성소국 055·249·7061

■ 청년성서 그룹 공부 모집

대 상 : 성경공부에 관심 있는 청년
과 정 : 창세기, 탈출기, 마르코, 요한
문 의 : 청년성서모임 010·3156·6993

■ 청년성가집 '나는 주님께 노래하리라' 안내

가 격 : 1만5천 원
문 의 : 청년부 055·249·7065
카톡플러스친구 검색 : 청년성서모임 성가집 주문

교구 성폭력 피해 접수처

우 편 : 창원시 마산합포구 오동북16길 27
성폭력 피해 접수처 앞 (우 51727)
E-mail : solace@cathms.or.kr
문 의 : 055·249·7002~3

위원회·기관·단체

■ M.E 월례회

일 정 : 8월 5일(월)
장 소 : 교구청

■ 어린이 농부학교

일 시 : 8월 9일(금)~11일(주일) 2박3일
장 소 : 합천자연학교
문 의 : 055·582·7010~2

■ 198차 ME 주말 안내(2박 3일)

일 시 : 8월 30일(금)19:00~9월 1일(주일) 17:00
장 소 : 마산가톨릭교육관
문 의 : 김주호(요아킴)·조정선(안나) 부부
010·7744·1551, 010·2736·3496

- 20차 쇄신주말 : 9월 21일(금)~22일(주일)
- 199차 ME 주말 : 11월 15일(금)~17일(주일)

■ 창원시장애인종합복지관 식당봉사자 모집

일 시 : 매월 첫주(월) 10:00~14:00
장 소 : 창원시장애인종합복지관 식당
문 의 : 055·237·6487

■ 마산장애인복지관 자원봉사자 모집

내 용 : 식당봉사, 방과후수업(요리, 방송댄스, 볼링)
기 간 : 3월부터 12월
장 소 : 마산장애인복지관 및 지역사회
문 의 : 055·247·5195~7

■ 고성 천사의 집 자원봉사자 모집

기 간 : 상시(평일 및 주말)
장 소 : 고성 천사의 집
분 야 : 용접
문 의 : 055·673·6609, 010·4557·3251

수도회

■ 제주 면형의집 피정(한국순교복자성직수도회)

수도회 수사들과 함께 제주성지·역사·평화순례, 미사(성무일도), 나눔, 올레길·오름 트레킹

* 모든 일정은 왕복항공권 포함해서 접수가능

일 정 : 8월 10일~13일(수도), 8월 15일~18일(수도),
8월 23일~25일, 9월 1일~4일(추자도),
9월 7일~9일, 9월 16일~18일
문 의 : 02·773·1463, 064·756·6009

■ 골롬반평신도선교사 관심자모임(해외선교)

일 시 : 8월 11일(주일) 14:00~17:00
대 상 : 만23세~만38세, 남·여
장 소 : 평신도선교사센터(4호선 성신여대입구역)
문 의 : 02·929·4841 www.columban.or.kr

기 타

■ 일본 가고시마교구 성지순례

출 발 : 매월 1회, 4박 5일/ 비 용 : 65만 원
지 역 : 가고시마, 나가사키, 아키타
문 의 : 송진욱 신부 010·3645·9028

■ 서울 삼성산성지 2박 3일 무료 치유 대피정

일 시 : 8월 9일(금)18:00~11일(주일)15:00
장 소 : 삼성산 피정의 집
강 사 : 양창우, 문호영, 이우진 신부 외
내 용 : 성시간, 매일미사, 찬양 및 강의
출 발 : 마산역 김안과 앞(10:30 출발)
문 의 : 010·5320·1331

천차만차
대동모터스 매매 31호
모든 중고차 매매 알선 위탁
창원시 의창구 무역로 489 (팔용동)
구용출 힐라리오 안경미 세라피나
055)288-1137
010-6299-1137

가톨릭신문투어
가톨릭신문사 성지순례
▶9/19 이스라엘, 이탈리아 12일 458만원
▶9/20 유럽 성모발현지 13일 395만원
▶9/24 발칸반도 12일 389만원
▶10/7 유럽 수도원 순례 12일 399만원
문의 02.2281.9070
www.cttour.org

마산 예경요양병원 (치매, 중풍, 만성 노인성 질환)
예경병원 (알코올 및 정신 질환)
055)249-5555 (구. 마산 파티마병원 자리)
이사장 김석주 베네딕토 011-592-8329
* 부모님처럼 모시겠습니다.*

쥬니어 음악학원 (피아노·바이올린)
유치부/ 초·중·고등부 / 일반부 입시부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 스카이웰빙 파크 2층
055)263-9320, 010-2559-3551
원장 최은숙 가타리나

품격순례 분도여행사
www.bundotour.com
8월 20일 스페인, 파티마 성지순례 11일 350 만원
8월 20일 메주고리예, 발칸, 이탈리아 12일 429 만원
10월 12일 파티마, 루르드, 바뇌 성모발현지 순례 13일 399 만원
▶출발 확정 · 전일정 공동경비포함◀
분도여행사 02.852.8525

■ ICPE 선교회 새로운 복음화 학교

일 시 : 8월 10일(토)~15일(목)
장 소 : 예수성심영성센터(부산 금정구)
강 사 : 프릿츠 마스카레나스
문 의 : 정종철 다마소 010·7535·9111

■ 제주 성 이시돌 자연 피정– 올레길, 미사, 기도, 강의

일 시 : 8월 15일~18일, 8월 28일~30일,
9월 1일~4일, 9월 18일~20일,
9월 22일~25일, 9월 27일~29일
대 상 : 개인, 가족, 본당 단체 등
문 의 : 제주 성 이시돌 064·796·9181

■ 2019 해외선교사 귀국 프로그램

일 시 : 10월 14일(월)~18일(금)
대 상 : 해외선교를 마치고 돌아온 선교사(귀국한지 1개월 이상)
문 의 : 02·953·0613
주 관 : 한국가톨릭해외선교사교육협의회(KCFMEA)
주 최 : 한국천주교주교회의해외선교·교포사목위원회

■ 대구가톨릭대학교 수시 신입생 모집
의료보건 및 소프트웨어 특성화대학

수시 2,676명 모집
가톨릭지도자추천전형 40명 모집
원서접수 : 2019년 9월 6일(금)~10일(화)
입학상담 : 053·850·2580

■ 2019년 2학기 수원교구 사이버성경학교 수강생 모집

대 상 : 성경공부를 원하는 모든 분
문 의 : 031·360·7635, 010·7470·7966
마 감 : 9월 30일(월)
인터넷 '사이버성경학교'검색

■ 가톨릭세실리아성음악협회 성음악교육피정

주 제 : 미사전례와 시간전례
일 시 : 8월 23일(금)~24일(토) 1박2일
마 감 : 8월 13일(화)
장 소 : 예수고난회 명상의 집(우이동 소재)
강 사 : 최호영 신부, 최대환 신부, 박재광, 고승익, 송기창
참가비 : 15만 원(숙식 및 교재 포함)
우리 1002-044-623614 박재광
문 의 : 010·4513·7605, 010·6395·1181
www.cecilkorea.org

■ 가톨릭여성회관 독서모임 회원모집

대 상 : 30~40대 여성신자
첫모임 : 9월 4일(수) 19:00 (매월 첫 수요일)
장 소 : 가톨릭여성회관
문 의 : 055·255·5080

■ 도박문제로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도박을 끊고 싶은 본인과 도박문제로 영향을 받고 있는 가족을 위한 익명의 모임이 여기에 있습니다.
한국단도박모임 : www.dandobak.or.kr
장 소 : 월남동성당, 매(주일) 17:00
문 의 : 010·9992·3443

유사종교 상담 및 피해사례 접수처

E-mail : samok1@cathms.or.kr
문 의 : 사목국 055·242·6776

명례성지 건축공사 입찰공고

공사명 : 수녀원 및 순례자의 집 신축공사
현장설명회 : 2019년 8월 6일(화) 14:00
장 소 : 명례성지
입찰 및 견적서 제출 : 8월 16일(금) 14:00까지
문 의 : 055·391·1205
* 세부사항은 교구 홈페이지 참고

창원지구 일일 낮피정

일 시 : 8월 5일(월) 13:00~15:30
장 소 : 반송성당
주 제 : 영적치유, 내적치유
강 사 : 이영숙 베드로 수녀
미 사 : 이동진 안셀모 신부
문 의 : 성령봉사회 010·9664·1813
* 미사준비

성령기도회	일 시	장 소	주 제	강 사	주 례	문 의
교 구	8월 5일(월) 19:00	월남동성당	성모님의 사랑	이형수 몬시뇰(블라시오)	이형수 몬시뇰	010-5072-5612
창원지구	8월 5일(월) 13:00	반송성당	영적치유, 내적치유	이영숙 수녀(베드로, 한국순교복자회)	이동진 안셀모 신부	010-9969-5340
청 년	매주 (화) 19:30	교구청별관지하	성령기도회	19:30 묵주기도 / 20:00 기도회(첫째주 : 미사, 셋째주 : 치유기도)		010-6667-7809

수도회 성소자 모임	일 시	장 소	문 의	비 고
한국외방선교수녀회	8월 10일(토) 14:00, 8월 11일(주일) 14:00	부산 부곡동 본원	010-3015-1773	

가톨릭 트래블
산티아고 순례길 41일
루르드/ 파티마 성지 순례 일정
439만원 (10월 2일, 인솔자, 신부님 동행)
070-4086-0207 www.catravel.co.kr

30년 일본성지순례전문
나가사키&오사카
베/드/로/여/행/사
대표 노정상 베드로
051.442.5730
010.3884.4590

SM 수맥 흙(돌)침대
주보 지참 교우 우대
거실 황토소파
평화방송·신문 광고 中
1588-5335

Club Raphael
라파엘여행사
◈ 9/9 추석특선 이스라엘,요르단 10일 (299만원)
◈ 9/11 추석특선 이태리일주 9일 (299만원)
◈ 9/9 추석특선 성모님발현 10일 (335만원)
◈ 9/1,9/29, 10/23 나가사키 4일 (949천원)
문의 (주)라파엘 여행사 02)778-8565

초음파 백내장수술 전문
범안과 의원
창원시 용호동 73-62 정우상가 4층 1-1호
055)285-0307 www.wavelasek.co.kr
원장 범진선 다니엘

명례성지 소금 판매
소금판매 수익금 전액은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 쓰입니다.
함초 소금 200g 1만 원
신청 : 055.391.1205

길모퉁이산티아고순례단모집
길순례단 | 9/6~9/15 (10일, 298만원)
모퉁이순례단 | 11/1~11/10 (10일, 298만원)
(의료진/길모퉁이서포터즈동행, 일정외 출발시 별도문의)
가톨릭 이안문화사업단 길모퉁이
www.gil1004.com
055.264.4628 / 010.9876.5000

바빌론

메소포타미아는 직역하면 강과 강 사이란 뜻이다. 이라크 동쪽을 흐르는 티그리스강과 서쪽을 지나는 유프라테스강 사이의 평원을 가리킨다. 바빌론은 이곳에 있던 고대도시다. 기원전 21세기 아모리족이 세웠다. 6번째 임금이 인류 최초 법전을 편찬했던 함무라비 왕이다. 유프라테스 강물을 토관과 연결해 생활용수로 사용했던 민족이다. 그만큼 앞선 문명을 지녔다. 이집트를 떠나온 이스라엘은 이들과 부딪치며 국가를 형성했다. 여호수아는 죽을 때까지 아모리족과 싸웠다. 이들은 셈족으로 분류된다. 노아의 아들 셈에서 따온 명칭이지만 후손은 아니다. 종족 이름을 만들 때 구약성경에서 차용했을 뿐이다.

기원전 6세기 이스라엘은 패망의 길을 걷는다. 북쪽은 아시리아 식민지가 되었고 남쪽은 바빌론 속국이 되어 포로로 끌려갔다. 선민 이스라엘이 어쩌다 이렇게 되었는지!! 바빌론은 회한의 땅이 되었고 유대인에겐 좋은 감정의 도시가 아니었다. 바빌론 남부에서 유프라테스강과 티그리스강은 만나 하나의 강이 되어 페르시아 바다로 들어간다. 이 지역은 수메르의 칼데아 지방으로 분류된다. 아브라함은 이곳 출신이었다.(창세 11.31) 수메르인은 독특한 문자를 만들었다. 쐐기문자다. 곤충 쐐기가 아니고 나무를 고정할 때 박는 쐐기를 말한다. 한자로 설형楔形문자다. 시간을 60분으로 나누는 60진법도 이들이 창안했고 노아 홍수 원형이라 일컬어지는 길가메시 서사시도 수메르인 작품으로 보고 있다.

전성기는 네부카드네자르 때였다. 유대인을 포로로 잡아갔던 왕이다. 그가 죽자 바빌론은 힘을 잃고 페르시아 키루스 왕에게 나라를 내줬다.(기원전 539년)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고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낸 인물이다. 페르시아 초기 바빌론은 번창한 도시로 남아 있었다. 그러나 반란과 독립운동이 반복되면서 서서히 파괴되어 갔다. 페르시아를 정복한 희랍의 알렉산드로스는 제국의 수도로 만들려 했지만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흐지부지되고 만다. 이후 바빌론은 쇠락했고 로마 시대엔 변방의 소도시로 전락했다. 중세 이후 바빌론 땅은 오스만 튀르크(터키)가 통치했고 1차 세계대전 때까지 계속되었다. 전쟁 뒤에는 영국 지배를 받았지만, 아랍인 반발에 영국은 이라크 왕국을 탄생시켰다.(1921년) 1958년 쿠데타로 군주제는 무너졌고 이라크는 공화국이 되었다. 1979년엔 널리 알려진 사담 후세인이 정권을 잡고 등장했다.

바빌론 홍수 이야기
https://www.livius.org/pictures/a/tablets/flood-tablet/